

(07330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, 농협재단빌딩 10층 대표전화 02)368-3600 팩스 02)368-3700

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문서번호 | MKT(ST)2311-564 |
| 시행일자 | 2023-11-16 |
| 수신 | 수신처 참조 |
| 발신 | NH-Amundi자산운용(주) 대표이사 |
| 제목 |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변경 안내 |

1. 귀 사(행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다음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에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펀드명 및 변경내역

| 펀드명 | 변경내역 | 약관 변경 |
|--|--|-------|
| NH-Amundi 스마트인베스터 5.0 분할매수 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 | 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(2023.02.20 시행) 반영 | - |
| NH-Amundi 글로벌 후순위채 증권모투자신탁[채권혼합-재간접형] | 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- 변동성(표준편차) 변경 반영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 (12.61% → 9.00%, 3등급 → 4등급) 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(2023.02.20 시행) 반영 | - |
| NH-Amundi 글로벌 후순위채 증권투자신탁(H)[채권혼합-재간접형] | 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- 변동성(표준편차) 변경 반영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 (10.87% → 6.17%, 3등급 → 4등급) - 소득세법 개정사항(2023.01.01) 반영 (연금계좌 세액공제) 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(2023.02.20 시행) 반영 | - |
| NH-Amundi 글로벌 후순위채 증권투자신탁(UH)[채권혼합-재간접형] | -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- 변동성(표준편차) 변경 반영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 (12.30% → 8.74%, 3등급 → 4등급) - 소득세법 개정사항(2023.01.01) 반영 (연금계좌 세액공제) -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(2023.02.20 시행) 반영 | - |
| NH-Amundi 하나로 TDF 2025 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 | -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조정에 따른 합성 총보수 · 비용 인하 | |
| NH-Amundi 하나로 TDF 2030 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 | -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조정에 따른 합성 총보수 · 비용 인하 | |
| NH-Amundi 하나로 TDF 2035 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 | -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조정에 따른 합성 총보수 · 비용 인하 | |
| NH-Amundi 하나로 TDF 2040 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 | -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조정에 따른 합성 총보수 · 비용 인하 | |
| NH-Amundi 하나로 TDF 2045 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 | -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조정에 따른 합성 총보수 · 비용 인하 | |
| NH-Amundi 하나로 TDF 2050 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 | -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조정에 따른 합성 총보수 · 비용 인하 | |

나. 효력발생일 : 2023년 11월 22일 (수)

다. 업무 참고사항

- 수시공시 필요

① 판매사 홈페이지 공시 ② 투자자에게 이메일 송부 ③ 영업점 게시

※ 잔고 유무 관계없이 예탁결제원 판매등록 된 판매사에 한하여 안내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
NH-Amundi자산운용 대표이사



수신처 :

NH농협은행, NH투자증권, DB금융투자, IBK기업은행, IBK투자증권, KB국민은행, KB손해보험, KB증권, KDB산업은행, SC제일은행,
경남은행, 교보생명, 교보증권, 대구은행, 대신증권, 미래에셋생명, 미래에셋증권, 삼성증권, 삼성화재, 신한은행, 신한투자증권, 키움증권,
하나은행, 하나증권, 한국투자증권, 한국포스증권, 한화생명, 한화투자증권, 현대차증권, 흥국증권